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 목요일(10/11) 저녁 8시 교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오늘 친교 시간에 독감예방 접종합니다.
- 웨체스터 교협 연합부흥회
  - 일시: 10월 8-10일(월-수) 저녁 8시
  - 장소: 한인동산장로교회(이풍삼 목사): 100 Hermann Pl., Yonkers, NY 10710
  - 강사: 이병우 목사(충주재일교회/ 충북연회 감독)
  - 주제: 신앙을 반석 위에! 인생을 반석 위에!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0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이현주 집사 (시 22:1-15)  
 이번 주 친교: 송은주 집사, 노미라 집사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최경자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Matthew 16: 13-16** -----Edwin Kim 전도사  
 설교(Sermon)----- **“Who Do You Say That I Am?”** ----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28장 (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 (Psalm) 26 ----- 이승택 집사  
 찬양(Choir)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롬 (Rom.) 1:17; 3:19-28**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461장 (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하나님의 능력이 됩이라 (롬 1:1-16)**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칠 무렵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며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행 19:21). 그러나 마게도냐와 그리스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행 20:3) 로마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던 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영적인 유익을 나눌 기대, 로마를 거쳐 서반아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 등이 나와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민족들,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 가운데서 쓰여졌기 때문에 편지 전체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 했던 것은 물론 선교 전략적으로 로마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바울의 심정, 그의 존재 자체가 그로 하여금 로마를 갈망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민족들에게 빛인 자라고 합니다(14절). 전하라고 준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빛인 자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갔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지만 자신이 제물이 되었고,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던 바울의 심정은 바로 다름 아닌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동일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몰고 다녔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분. 모든 민족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죽으신 분으로 인해, 바울은 이제 아무도 - 헬라인과 유대인, 야만인과 지혜자 - 육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사람들로 봅니다. 여러 민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그 근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전도는, 사명은, 예배와 섬김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 됩니다. 전략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됩니다. 모든 민족의 구별을, 우리의 실력을 압도하는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라고 주신 권세는 모른체 하고 하나님과 협상해 내 소원과 계획만 얻어내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증인, 씨 뿌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될 줄 압니다.